洪吟

홍 음

(三)

李洪志

解體

雷大鳴
雨不停
天翻地覆肅邪靈
百年紅魔一朝去
風雨過後天即明

어디로 도망갈쏘냐

황급히 뒷문으로 돌아가거니
쓰레기 버리는 길이라
파룬따파 하오를 감히 바로 보지 못하네
타격해도 무너지지 않고
보기 또한 두려워
도망가기 급급하거니
9평이 전해지자 사당(邪黨)이 무너지네

往哪逃

急急忙忙後門繞
垃圾道
不敢見到法輪大法好
打不垮
見又怕
趕緊逃
九評驚爆邪黨垮掉

目錄

詩詞

無度	(2004年2月10日)	2
구도될 수 없다		3
穿腸	(2004年5月5日)	4
장(腸)을 뚫다		5
尋	(2004年7月19日)	6
찾아라		7
觀感	(2004年7月19日)	8
관감(觀感)		9
癡	(2004年7月20日)	10
어리석음		11
紅潮散	(2004年10月19日)	12
홍조 흩어지다		13
少辯	(2005年1月3日)	14
논쟁하지 말라		15
新唐人	(2005年2月5日)	16
신당인		17
修煉形式	(2005年3月21日)	18
수련형식		19
一念	(2005年4月10日)	20
일념(一念)		21
麻煩	(2005年5月22日)	22
번거로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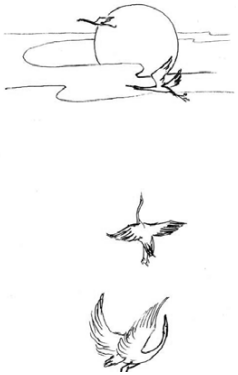
退者生 (2005年7月5日) 24
탈퇴하면 살아남으리 25
往哪逃 (2005年8月11日) 26
어디로 도망갈쏘냐 27
解體 (2005年8月15日) 28
해체(解體) 29
只為這一回 (2005年9月18日中秋) 30
오직 이 한차례를 위해 31
身敗 (2005年10月4日) 32
신세를 망치다 33
災難為何多 (2005年10月9日) 34
재난이 왜 이리 많은가 35
乾坤再造 (2005年11月22日) 36
건곤을 다시 만들다 37
見善 (2005年11月29日) 38
선(善)이 보이네 39
觀神韻 (2006年1月21日) 40
션원을 관람하다 41
入聖境 (2006年4月6日) 42
성경(聖境)에 들어가다 43
還原 (2006年6月3日) 44
환원(還原) 45
神在世 (2006年7月22日) 46
신이 세상에 있다 47
誰識 (2006年8月17日) 48
누가 알리요 49
助師 (2006年11月15日) 50
조사(助師) 51

탈퇴하면 살아남으리

세상을 조용히 바라보니
세세마다 바뀌었구나
인생은 한 막의 꿈과 같은 것
미혹된 자 마음 어리석고
착란을 일으킨 무리 미쳐 날뛰는데
법이 바뀌어
사람과 귀신 가려지리니
일념이 일생을 정하리라

退者生

靜觀寰瀛
世世變更
人生戲夢
迷者癡心
癲徒如瘋
法變更
人鬼清
一念定下終生



劫 (2006年12月22日) 52
겁(劫) 53
鎖緊良知 (2007年1月30日) 54
양지(良知)를 지키라 55
新世紀 (2007年7月) 56
신세기(新世紀) 57
更豔 (2007年10月17日) 58
더욱 예쁘구나 59
真相能解憂 (2007年10月25日) 60
진상은 근심을 풀 수 있다네 61
濟世 (2008年5月15日) 62
제세(濟世) 63
法開天地 (2008年8月30日) 64
법이 천지를 열다 65
龍泉寺 (2008年10月10日) 66
용천사(龍泉寺) 67
消停 (2008年10月) 68
그치다 69
救天穹 (2008年11月11日) 70
천궁을 구하다 71
神韻 (2008年12月8日戊子十一月十一日) 72
션윈(神韻) 73
抱輪 (2009年1月10日) 74
포륜(抱輪) 75
換地 (2009年1月17日) 76
땅이 바뀌다 77
喝狼藥 (2009年7月1日) 78
늑대 약(狼藥)을 마시다 79

紅潮末日 (2009年10月18日) 80
홍조의 종말 81
再轉 (2009年12月1日) 82
다시 돌리다 83
甚麼是中華文明 (2010年元旦) 84
무엇이 중화문명인가 85
陰陽反背 (2010年) 86
음양반배(陰陽反背) 87
正法 (2010年4月23日) 88
정법(正法) 89
臥長亭 (2010年7月18日) 90
정자에 누워 91
藐 (2010年10月4日) 92
가소롭구나 93
無題 (2010年10月5日) 94
무제(無題) 95
贈世人 (2011年1月22日) 96
세인에게 주노라 97
巡演路上 (2011年4月11日) 98
순회공연 길에서 99
遊紅石山 (2011年4月11日) 100
홍석산을 거닐며 101
看山 (2011年4月11日) 102
산을 보다 103
誰是誰非 (2011年5月16日) 104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105

번거로움

깊이 잠들면 마음의 번뇌를 잊으나
깨어나면 만사가 근심걱정이로다
천지는 정법(正法)의 길을 막지 못하는데
다만 제자들의 사람 마음이 가로막고 있네

麻煩

閉目入鼾斷心煩
醒來萬事操不完
天地難阻正法路
只是弟子人心攔

歌詞

善惡自選	(2006年4月)	108
선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		109
選擇	(2006年4月30日)	110
선택		111
機緣一瞬間	(2006年5月2日)	112
기연은 한순간		113
我是誰	(2006年)	116
나는 누구인가		117
慈悲	(2006年)	118
자비(慈悲)		119
為何拒絕	(2006年)	120
왜 거절하는가		121
找真相	(2006年)	122
진상을 찾으세요		123
生生為此生	(2007年6月10日)	124
세세생생 금생을 위해		125
義無反顧	(2007年6月21日)	126
의무반고(義無反顧)		127
救人的是神	(2007年6月27日)	130
사람을 구하라 한 것은 신이라네		131
解憂	(2007年10月21日)	132
근심을 풀어주다		133
喚醒	(2007年10月26日)	134
일깨움		135

只有真相能解救 (2007年10月26日) 136
진상만이 구할 수 있네 137
了解真相 (2007年10月29日) 138
진상을 알라 139
我們知道 (2007年11月1日) 140
우리는 알고 있네 141
別讓我為你遺憾 (2007年) 142
유감을 남기지 말라 143
我們為了誰 (2007年) 144
누구를 위해서인가 145
我為你歌唱 (2007年) 148
나 그대를 위해 노래 부르네 149
得失一念 (2008年2月7日) 152
득실은 일념에 153
留意 (2008年4月27日) 156
유의(留意) 157
給你希望的路 (2008年6月15日) 158
그대에게 희망의 길을 159
眾生為法來 (2008年6月15日) 160
중생은 법을 위해 왔다네 161
撒甘露 (2008年6月18日) 162
감로를 뿌리다 163
打開理智的門 (2008年7月30日) 164
이지의 문을 열다 165
不要再徘徊 (2008年) 166
더는 배회하지 말라 167
清醒 (2008年) 168
깨어나라 169

일념(一念)

속(俗)과 성(聖)은 한 갈래 냇물 사이이고
진(進)과 퇴(退)는 두 하늘이라
수림 속 절 들어가려 하거니
한걸음에 구름 위로 오르네

一念

俗聖一溪間
進退兩重天
欲入林中寺
一步上雲煙

對神的承諾要兌現 (2008年) 170
신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 하리 171
真相在傳 (2008年) 174
진상이 전해지고 있네 175
真相就是指路燈 (2009年2月9日) 176
진상은 앞길을 밝히는 등불 177
把法等 (2009年2月20日) 178
법을 기다리네 179
自選 (2009年2月24日) 180
스스로 선택하다 181
永不迷航 (2009年3月14日) 182
영원히 항로를 잃지 않으리 183
誰能得 (2009年3月21日) 184
누가 얻을 수 있나 185
明善惡 (2009年4月3日) 186
선악을 분명히 187
靜心瞅一瞅 (2009年4月6日) 188
마음 조용히 바라보면 189
選哪邊 (2009年4月8日) 190
어느 쪽을 선택하려나 191
指路燈 (2009年4月16日) 192
앞길 밝혀주는 등불 193
有望 (2009年6月12日) 194
희망이 있네 195
回天門 (2009年6月28日) 196
하늘로 돌아가는 문 197
告世人 (2009年8月10日) 198
세상 사람에게 고하노라 199

回天是彼岸 (2009年8月11日) 200
하늘로 돌아감이 피안이라네 201
巡迴歌 (2009年8月24日) 202
순회가(巡回歌) 203
通向新世紀 (2009年11月13日) 204
신세기를 향하여 205
唯一的希望 (2010年1月2日) 206
유일한 희망 207
甚麼是你的想往 (2010年1月10日) 208
무엇이 그대의 바람인가 209
叫我傳真相的是神 (2010年3月9日) 210
신이 나에게 진상을 전하라 하네 211
理順 (2010年3月21日) 212
바로잡다 213
神叫我為你奔忙 (2010年4月3日) 214
신이 나에게 그대 위해 동분서주 하라네 215
悔無濟 (2010年4月6日) 216
후회해도 소용없으리 217
真相給您 (2010年5月6日) 218
진상을 그대에게 219
實踐誓約 (2010年8月16日) 220
서약 실천 221
人生何為 (2010年8月18日) 222
인생은 무엇인가 223
人生為何 (2010年9月10日) 224
인생은 무엇을 위해 225
盼望 (2010年11月6日) 226
간절한 바람 227

수련형식

절에 들어가지 않고 입산(入山)도 않고
학교 다니고 농사짓고 직장에 다니네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 법에서 수련하니
속세의 깨끗한 연꽃 악(惡)에 물들지 않네

修煉形式

不進寺院不入山
上學耕種上下班
直指人心法上修
俗世淨蓮惡不沾

在眼前 (2010年11月24日) 228
눈앞에 있네 229
誰能告訴我 (2010年11月26日) 230
누가 내게 알려줄 수 있나 231
心中的歌 (2010年) 232
마음의 노래 233
路通天 (2010年) 234
길은 하늘로 통하네 235
救你實在沉 (2010年) 236
그대를 구하기 실로 어렵네 237
傳真言 (2010年) 238
진언(眞言)을 전하다 239
尋覓 (2010年) 240
찾음 241
救你回天 (2010年) 242
그대를 구해 하늘로 돌아가게 하리 243
危難前把你叫 (2011年3月1日) 244
위난 전에 그대에게 알리네 245
生命的意義是甚麼 (2011年3月22日) 246
생명의 의의는 무엇인가 247
誓約是否遺忘 (2011年4月12日) 248
서약을 잊었는가 249
除去你的鏽 (2011年4月28日) 250
당신의 녹을 제거하네 251
回家的希望 (2011年5月3日) 252
집으로 돌아갈 희망 253
紅塵似海 (2011年5月9日) 254
속세는 바다와 같네 255

醉中醒 (2011年5月15日) 256
취함에서 깨어나라 257
待佛度 (2011年5月16日) 258
부처의 구도를 받으리라 259
話有緣 (2011年5月18日) 260
연(緣)을 말하다 261
真相 (2011年5月18日修改) 262
진상(眞相) 263

신당인

멋진 춤사위 너울너울
펄럭이는 깃발 울리는 북소리
고풍이 재현되니
중토(中土)의 부흥이로다

詩詞

新唐人

輕紗曼舞
旖旎聲鼓
古風再現
復興中土

無度

燈紅酒綠現代世
迷魔亂舞荒淫事
放縱魔性離神遠
地獄一入無出日

논쟁하지 말라

강변(強辯)에 부딪혀도 다투지 말지니
안으로 원인을 찾는 것만이 수련이리라
밝히려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거니
마음 비워 집착 없으면 명견(明見)이 나온다네

少辯

如遇強辯勿爭言
向內找因是修煉
越想解釋心越重
坦蕩無執出明見

구도될 수 없다

사치스럽고 방탕한 현대 세상
마에 빠져 날뛰며 황음(荒淫)한 짓 다하네
마성을 방종하여 신과 멀어지니
지옥에 떨어지면 헤어날 날 없으리라

穿腸

酒是穿腸藥
上癮難戒掉
一杯解心憂
十觴鬼在笑

홍조 흩어지다

홍조(紅潮)의 기운 다하니 꽃은 이미 떨어지고
망할 징조 천재(天災)는 사당이 화근일세
권세라면 후안무치하고
탐관은 위험마저도 아랑곳하지 않네
인심(人心)엔 선념이 없어
누를수록 원한만 들끓네
누가 아직도 박해하고 있는지
추적 조사 결코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

紅潮散

紅潮末運花已落
敗像天災邪黨禍
為權厚著臉
貪官在走險
人心無善念
高壓越蒸怨
誰還在迫害
追查決不倦

장(腸)을 뚫다

술은 장(腸)을 뚫는 약
인이 박이면 끊기 어렵다네
한 잔(一杯)에 마음걱정 풀어보려 하지만
열 잔(十觴)을 마시면 귀신이 좋아 웃는다네

尋

迷迷塵世路
盡把苦難布
來前本是天上王
尋
為法來世間
要精進
別誤登歸步

어리석음

인생은 짧은 것
잠시 여관에 든 것 같다네
올 때 발한 서원 잊지 말거라
명리정구(名利情仇)로 머뭇거리다
언제 깨달아 집으로 돌아가리

癡

人生短
來住店
別忘來時發的願
踟躕路上名利情仇
何時醒悟返家院

찾아라

어지럽고 어지러운 속세의 길
온통 고난으로 가득하구나
오기 전엔 원래 천상의 왕이었거니
찾아라
법을 위해 세간에 왔으니
정진하라
돌아가는 발걸음 차질 빚지 않도록

觀感

生在苦難中
半生兩袖空
一朝得法向上衝
快
做好三件事
救眾生
回歸步別鬆

관감(觀感)

고난 중에 태어나
반생을 헛되이 보내다가
하루아침 법 얻어 위로 돌진하는도다
다그쳐라
세 가지 일 잘하여
중생을 구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늦추지 말라